

# 구직효능감(job-seeking efficacy)으로 인한 Work-net의 이용의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오성욱\* · 윤성준\*\*

## 〈요 약〉

본 논문은 인터넷의 이용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구직활동 태도에 대한 지각된 요소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델로 Davis의 TAM의 두가지 측면 즉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인터넷 구직효능감 또는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터넷 활동을 실행하거나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대한 보다 호의적 태도를 얻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연구모형 검증은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의 구성개념간 이론적 인과관계와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MOS 통계처리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인터넷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많은 과거 연구결과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이 정보기술의 이용행동에 과 이용자의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지각이 형성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결정계수들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보다 높은 구직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 뿐만아니라 이용의도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력선발 자기효능감, 구직자 자기효능감, 기술수용모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상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가 기존의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효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경제에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서비스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용서비스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종전과 같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직접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게 하는 대신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신

\* 서울강남지방 노동사무소 ·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비즈니스학 박사과정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청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신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인력은 재취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종전에는 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여 수요자가 직접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노동시장정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노동시장정보제공 및 직업상담·취업알선기능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는 안방에서 PC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직접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노동시장 정보제공서비스는 모든 국가의 근로자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안방에 앉아 다른 나라의 노동시장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 변화로 인한 노동 수요공급의 불일치와 노동인력의 거대한 이동에 따라 직업알선 및 소개업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직업소개업중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전자직업정보중개의 등장은 노동시장의 매개기능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였으며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직업소개는 1차적으로 정보의 단순한 중개, 2차적으로 정보의 가

공, 3차적으로 토털서비스의 제공에 이르는 정보패키지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의 가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직업상담 및 구인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토털 정보서비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On-line과 Off-line의 역할분담하에 고용계약의 체결까지 담보하며 직업소개로서 소개기관의 인증, 능력개발 상담, 자격상담까지 구직자의 경력개발(CDP)과 교육훈련, 구인자의 인사 및 조직관리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의미한다(윤석천, 2001).

이러한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이동 및 구인구직을 연계하여 중개기능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 및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Infomediary는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도 목표시장에 효율적으로 상품을 전달하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비용의 감소에 기여하고, 상품 구색의 전환(시간, 장소, 소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상품의 양, 상품 구색(assortment), 시간(temporal), 공간(spatial)상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Hoffman외, 1995).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용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기 보다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등을 활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인구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구직자의 이용특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이용의도 및 성과에 기여하였다는 기존연구(유일·황준하,2002; 이견창외,2002)에 기초하여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이용하는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에 따른 이용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고용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시스템으로 1987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1995년부터는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실업급여-취업알선업무의 연계가 필요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1999년에는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 직업정보, 취업정보, 직업훈련정보, 고용동향정보의 통합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 현재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운영하고 있다. 연결방법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일반국민을 위한 인터넷 정보제공기능과 내부사용자용 인트라넷(고용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www.work.go.kr)정보내용은 <표 1>과 같다.

## II. 이론적 배경 검토

### 1. 인터넷 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 또는 '행동의 변화를 증재하는 인지 메커니즘으로서, 특정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 동기, 인지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표 1> Work-net의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취업정보	일자리정보(일자리검색, 구인광고, 상시채용, 공무원채용정보 등) 인재정보, 개인등록(구직등록/신청), 기업등록(구인등록/신청) 고용관련기사, 취업알선기관안내 등
직업정보	취업준비 -이력서 작성법, 직업소개서 작성법, 면접준비방법, 성취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신청 직업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 안내 및 실시 직업탐색 - 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서, 자격정보, 학과정보, 훈련정보 등 취업나침반 (고용동향, 통계, 용어해설, 통계관련 사이트 링크) 직업상담(취업알선기관안내, 원격직업상담, 직업의 세계(동영상), 취업가이드북, 청소년진로지도, 취업에 관한 자세한 도움자료)
고용보험정보	고용보험소식, 고용보험가입확인, 실업인정신청, 고용보험사업안내
실업대책정보	주요실업대책, 장애인지원안내, 실업대책추천서비스 등
노동법령정보	고용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서식
서식다운로드	취업알선서식, 고용보험관련서식, 고용안정사업관련서식
부가서비스	고용관련소식, 고용관련기사, 직업훈련서식, 구인구직정보PUSH서비스,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유관기관홈페이지 구축서비스 등

신념 또는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추진해 나가려는 동기가 함께 결합된 개념을 말한다.

특히 이러한 정의는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구성기술(component skills)과 능력을 구분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데, Bandura(1984)는 구성기술(조종, 브레이크, 신호)과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행동(고속도로에서 운전)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단순한 구성기술을 반영한다기보다 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반영하고 있다(Compeau 외, 1999).

인터넷에서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및 자신감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에 행했던 것과의 관련이 아니라, 미래에 행할 수 있는 판단과 관련이 있다.

최초의 인터넷 수용에 대한 장애요인인 복잡성, 지식과 새로운 사용자에게 의해 직면하게 되는 편안과 만족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부족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성취를 얻고자 요구되는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이용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97). 인터넷을 이용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터넷 기술에 대해 불만족하고 인터넷을 이

용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약한 자기효능감 믿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인터넷을 수용하고 이용하는데 미래에 관련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은 적어진다(Bandura, 1982).

사회인지이론에서(Bandura, 1982; 1997)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행하는가에 대한 결정에, 장애물을 만날 때 받아들이는 인내와 노력의 양, 그럼으로써 행동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평가의 한 형태이다. 자기효능감은 기술력의 한 측정이 아니라 개인이 처리하는데 기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현재 혹은 미래에 웹 행동을 성취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HTML 작성, 브라우저사용, 파일전송과 같은 특정한 인터넷 관련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스킬로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발견 혹은 문제성의 탐색 문제와 같은 좀 더 포괄적인 모드에서 인터넷 스킬을 적용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평가한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로 Srinivasan(1985)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능력이 보고서 내용물의 정확성, 이해 용이성 등과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Igbaria(1990)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나이, 성별, 지위, 교육수준, 전산교육, 컴퓨터 사용경험)이 사용자 태도와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제한하였다. 또한 Compeau & Higgins (1995)는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 사용도(usage)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의 연구대상은 주로 World-Wide Web에 들어가는, 폴더와 북마크를 만드는 것, 메일, FTP와 telnet를 사용, 북마크 이동 등으로서 특정한 과업의 수행에 초점을 두었다(Nahl, 1996). Ren(1999)은 정부 정보 원천에 대한 탐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특정한 자기효능감의 측정항목을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의 자기효능감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지각과 과업수행(Nahl, 1996), 사용량(Ren, 1999)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관련연구에서도 유일·황준하(2002)와 이견창외(2002)등이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컴퓨터 이용과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한하였다.

## 2. 인력선발의 자기효능감과 구직자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발, 훈련, 성과평가, 및 결근과 관련하여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Gist와 Mitchell(1992)은 작업장에서의 동기과 성과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혔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켜야 함을 제의하였다. 이와같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인적자원관리 전문가의 기술목록으로 발전하였다.

자기효능감이 고려되는 인적자원관리분

야는 주로 선발, 훈련수요평가, 훈련방법, 성과평가 및 결근에 관한 것이며 주로 현장에 접목을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적자원 기능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의 적용은 이론적인 면이 있으나 구직자 선발에 관련한 자기효능감의 평가의 유용성은 구직자의 미래 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실무적 적용에 있다(Gist, 1987). 구직자의 조직 적용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낮은 효능감을 갖은 구직자는 보다 보호관리지향적인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자의 선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은 구직자는 외부통제성향(External locus of control) 즉 자신의 앞길이 우연이나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믿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Jones, 1986). 따라서 구직자의 선발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Steven & Alan hare, 1996)

한편, Ryne과 Vinokur(1992)의 연구에 의하면, 구직자의 직업을 탐색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직의향, 구체적인 구직행동 그리고 직업을 찾는 태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효능감이란 구직자가 다양한 구직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Wanberg외, 1996). 이는 Bandura(1986)가 정의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자기 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

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 구직 효능감이다(Kanfer & Hulin, 1985). 구직 효능감과 구직행동간의 구체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Kanfer & Hulin(1985)은 이를 후 직장(병원)을 떠나게 될 35명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관련된 태도, 행동변수를 질문하여 한 달후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구직행동과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 효능감은 과거의 구직 경험, 언어적인 설득, 다른 사람들의 구직 행동 참여에 대한 관찰 등으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

Ryn & Vinokur(1992)는 태도-행동 모델에 구직 효능감을 통합시킨 모형으로 구직 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은 구직기술훈련, 사회적 지지, 실패에 대한 대처 등이었다. 개입 결과 위 내용의 훈련을 받은 실험 집단의 구직 효능감이 높아졌고 이는 다시 구직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den & Aviram(1993)의 연구 결과에서도 구직효능감 훈련을 받은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이 시사해주는 바와 같이 구직 효능감은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구직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직장을 찾아보지 못하고 비효과적인 구직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Work-net의 구직효능감이 지각된 이용편리성과 지각된 유용성

뿐 만아니라 시스템의 이용의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기술수용모형

Davis(1989)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모형을 갖고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Ajzen & Fishbein(1980)이 제시한 행위의도를 유발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그 결과 결국 행위를 유발시키는 이론을 TAM에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흔히 Fishbein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Ajzen(1985)이 제안한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다. TAM은 이용자의 행위의도는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uctive Norm) 그리고 자기효능(Self Efficacy)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Tan & Teo , 2000). 한편 Davis는 TAM의 신념(Belief)-태도(Attitude)-행위의도(Intention)-행위(Behavior)로 이어지는 관계가 사용자의 정보기술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이용의 편리성(Ease of Use)이 이러한 신념을 대표하여 이러한 수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Lederer외., 2000) TAM의 또 다른 두 부분은 사용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대한 행위의도로 되어 있다. 사용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사용의 행위의도는 개인이 그 시스템을 사용할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Fishbein & Ajzen, 1975) TAM모형은 연구자에 따

라서 추가적인 관계를 고려하기도 하고 이용의 의도나 태도는 무시하기도 한다. (Adams외, 1992; Gefen & Straub, 1997; Straub외, 1995)

<그림1>은 외부변수를 고려한 기술수용 모형(Davis et al.,1989)이며 Davis, Bagozzi 와 Warshaw(1989)는 기술수용모형에서 사용되는 외부변수로 시스템의 특성, 교육 훈련, 조직지원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정보시스템의 기본 수용론을 더 잘 설명하고 편리성과 유용성의 의의와 영향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로 통합된 TAM 모델이나 수정된 TAM모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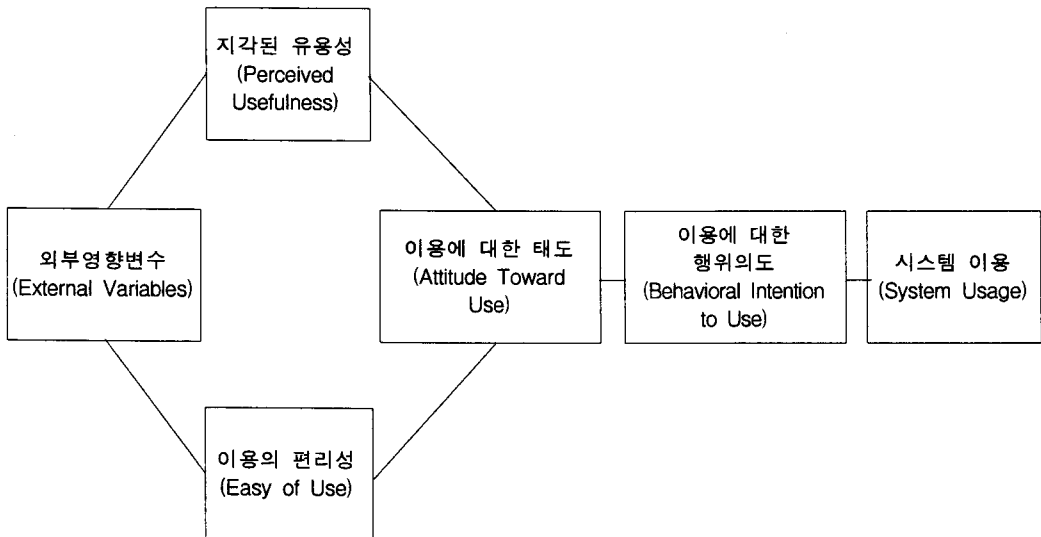
Dowing(1999)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사용자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편리성(Easy Of Use) , 내용성(Contents), 형식(Format), 정확성(Accuracy), 적절성(Timeliness) 5가지 구성요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내용성 변수가 유용하게 고려

되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Lin and Lu(2000)는 TAM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보시스템 품질(Quality)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웹 사이트 수용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였다. 정보의 질, 반응시간, 시스템 접근성을 정보시스템 품질(Quality)요소로 두고 연구한 결과 정보의 질과 반응시간은 편리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응시간과 시스템 접근성은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ahanna and Straub(1999)는 TAM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 심리학적인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심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ibility), 지원(Support)등의 변수들이 인지된 유용성(PU)와 인지된 편의성(PEU)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Transportation company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 그림 1> TAM 모형



Cheung et al.(2000)은 사회 심리학적인 모델을 기초로 수정된 TAM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추가된 사회적 요소는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기술 수용 연구에서 심리적 연구의 가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 외부영향 변수

TAM에 영향을 주는 외부 영향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최근에 Venkatesh & Davis(2000)는 TAM의 이론적 확장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주관적 규범, 자발성과 이미지와 같은 사회적 영향 과정과 직무 관련성, 출력의 질, 그리고 결과 데모가능성과 같은 인지적 수단 과정들이 이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용성과 사용의 편리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로서 개인차이(e.g., 자기효능감, 경험), 시스템특성(e.g., 관련성, 화면설계), 그리고 정보시스템 품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ong et al., 2002; Lin & Lu, 2000).

2) 지각된 이용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

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사람이 기술을 이용할 때 노력을 들이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 몰입된 노력의 평가를 다른 하나의 개념(construct)를 말한다(Davis 1989). 본 연구는 TAM의 지각된 이용 편리성에 초점을 두지만, 사용자 수용을 연구하는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도 또한 비

슷한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hompson외(2001)는 “복잡성”으로서 이 개념을 명칭하였고, Moore와 Benbasat(1991)는 “편리성” (ease of use)으로 명했다. Venkatesh & Davis(2000)는 지각된 이용 편리성이 TAM에서의 의도와 일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행동 의사결정에서의 다양한 연구들(e.g., Payne외.1993)이 있으며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e.g., Todd and Benbasat 1991)에서는 TAM에서 제시한 것처럼 통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들이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지각된 이용 편리성과 사용 행동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Venkatesh and Davis(1996)는 핵심 TAM개념인, 지각된 이용 편리성과, 유용성의 선행변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2가지 메카니즘에 의해 지각된 이용 편리성의 결정요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사용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의도에 간접적 효과를 가진다. (2)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사용자가 수용, 채택, 시스템사용을 극복해야 하는 최초의 난관이라는 것이다(Davis 외. 1989).

또한 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시스템사용이 우호적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노력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Radner Rothschild, 1975), 모든 것이 동등할 때, 다른 것보다 더 사용하기 쉽다고 지각되면 사용자들에 의해 더 잘 수용되어질 수 있다. 과거 연구는 일반적으로 지



각된 이용 편리성이 직접적으로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되어 졌다(Davis, 1989).

일반적으로, 한 시스템이 사용하기가 쉽다면, 사용자들은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수용과 사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반대로,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에서 중요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적게 수용되어질 것이다.

### 3)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사전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컴퓨터 사용과 강하고, 일치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Davis(1989)는 지각된 유용성이 자기보고(self-reported)된 현재 사용과 자기예측(self-predicted)된 미래사용 모두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Igbaria의(1995)도 지각된 유용성이 시스템사용 차원에 직접적인 강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Igbaria의(1995) & Adams의(1992)는 또한 지각된 유용성이 시스템 사용과 긍정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이 그러한 이용이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각할 때만 컴퓨터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각된 유용성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미래의 쇼핑행동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이용의도 및 성과(Behavioral intention and performance)

Davis (1989)에 의해 정의된 지각된 유용성은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와, 사용자 수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컴퓨터 불안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을 더 잘 사용할수록 불안은 더 적어지고, 일에 적용시키는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편리성 등이 웹쇼핑에 대한 태도와 매체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동기 요인이 Work-net의 이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과는 시스템을 이용자의 몰입과 참여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신장 등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Fellers와 Moon(1994), 김광용(1998), 유일(199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 항목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 Ⅲ. 연구가설 및 연구 방법

Hong et al.(2002)와 Lin & Lu(2000)은 TAM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 컴퓨터 경험, 시스템 특성 및 정보시스템 품질을 외부영향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유일·황준하(2002)는 컴퓨터 경험, 컴퓨터 불안감, 환경요인을, 이권창외(2002)는 컴퓨터 경

험, 지각된 위험, 자기효능감, 기술적 지원을 외부영향변수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van Ryn과 Vinokur(1992)는 구직효능감이 구직의지와 구직행동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직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과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구직효능감은 인터넷에서의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으로서 인터넷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한 유용성과 편리성도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 인터넷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 인터넷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사전연구는 지각된 유용성은 계속해서 태도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지각된 이용편리성은 태도형성과 일치하지 않고, 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문헌에서, 관찰된 이러한 차이는 구매의도의 결정요인으로서 지각된 이용 편리성의 중요성이 매체사용 노출이후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enopir(1999)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 구매의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다른 연구자들도(Szajna, 1996; Davis

et al, 1989; Taylor and Todd, 1995) 똑같이 지각된 이용 편리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각된 이용 편리성은 별 노력 없이 시스템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Venkatesh(2000)는 TAM 모델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이용 편리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기술이 쉬우면 쉬울수록 더 유용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지각된 이용 편리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인터넷 구직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구직에 대한 정보를 잘 탐색하며, 그럼으로 인해서 구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결국은 구직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편리성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Davis, 1989). 즉 구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4 : 지각된 이용편리성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5 :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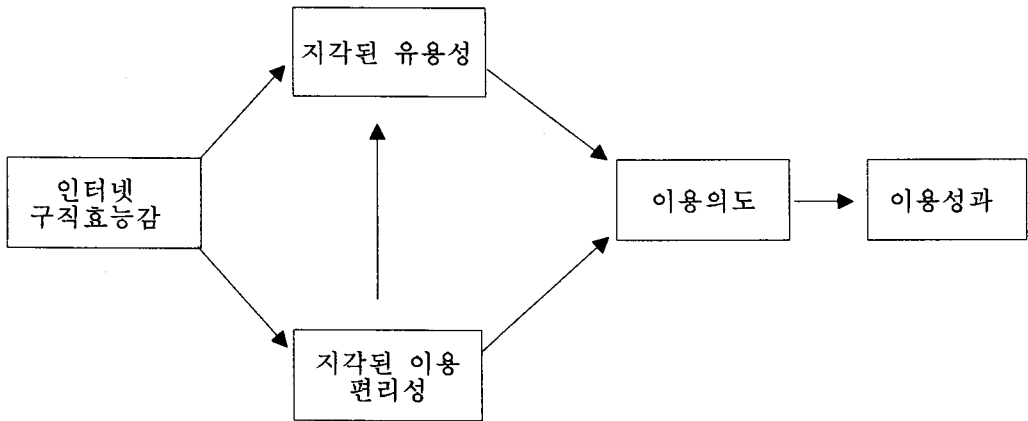
이용성과는 work-net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직자의 몰입과 참여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신장 등 구직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구직기술 향상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직활동의 수단을 제공하는 Work-net의 이용 의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의 가설을 종합하여 연구모형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가설6 : 이용의도가 높을수록 이용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그림 2> 연구 모형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내용

변수	조작적정의	문항	설문내용
인터넷 구직효능감 (internet jobseek- efficacy)	Work-net에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및 자신감	4	Work-net을 통해 필요한 취업정보를 탐색할 자신 Work-net을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전달할 자신 Work-net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취업 자신 Work-net을 통해 구직기회가 있을 만한 곳을 발견할 자신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Work-net이 자신의 성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4	Work-net을 통해 구직하는데 매우 유용 Work-net은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음 Work-net은 보다 좋은 구직활동 가능 Work-net은 구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
지각된 이용 편리성 (perceived EOU:ease of use)	Work-net사용이 노력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쉬운정도)	4	Work-net은 이용하기 쉬움 Work-net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음 Work-net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음 Work-net은 사용방법을 이해하기 쉬움
이용의도	Work-net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의도)	4	Work-net을 이용할 의사 Work-net을 이용할 여건이 주어지면 계속 사용여부 다른 구직자에게 Work-net 이용 추천 Work-net 이용을 더욱 확대할 생각임
이용성과	구직하는데 있어서 기여도	4	Work-net을 통해 구직 관심 증가 Work-net을 통해 구직활동 적극 참여하게 됨 Work-net을 통해 구직 동기 부여 Work-net을 통해 구직 이해 증진

## IV. 연구 결과

### 1. 자료수집 방법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각 개인의 인터넷 사용행동과 이용성파에 관한 것으로 그 분석단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구직자이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서 Work-net을 통해 구직등록한 구직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자의 성격상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207명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남자 97명, 여자 110명으로 각각 46.9%, 53.1%이며,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99명으로 47.8%, 30대가 83명으로 40.1%으로, 40대가 22명으로 10.6%이고, 50대 이상이 3명으로 1.4%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연구모형 검증은 우선 각 변수간의 회귀분석을 통

해 모형내의 구성개념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와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MOS 통계처리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 1)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실질적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항목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으로 하여 요인회전은 베리맥스로, eigen value는 1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터넷 구직효능감이 지각된 이용편리성,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 2가지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분석의 결과는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낮은 값을 갖는 항목과 커뮤널리티가 0.5미만의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모두 2.0보다 컸으며 각 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지각된 이용편리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요인1 (지각된 이용편리성)	요인2 (지각된 유용성)
이용 편리	.821	
정보탐색 편리	.818	
능숙한 편리	.769	
사용방법 이해편리	.777	
구직에 유용		.805
보다쉽게 취업 가능		.837
좋은 구직활동 가능		.796
구직능력 향상		.861
eigenvalues	2.537	2.723
설명된총분산	63.416	68.081

<표 4> 인터넷 구직효능감, 이용의도, 이용성과에 대한 요인

항목	인터넷구직효능감	이용의도	이용성과
취업정보 탐색자신	.853		
자신의 능력 잘 전달	.877		
성공적 취업 자신	.745		
구직기회 발견 자신	.766		
이용할 의사		.765	
계속사용여부		.760	
이용 추천		.803	
이용 확대 고려		.824	
구직관심 증가			.822
구직활동 적극 참여			.718
구직동기부여			.813
구직이해증진			.742
eigenvalues	2.638	2.486	2.402
설명된 총분산	65.945	62.138	60.041

2) 설문지의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Alpha값으로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계산된 신뢰도 값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Cronbach's Alpha가 0.6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분야에서는 0.8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ronbach's Alpha 값으로 총 20개의 문항이며 전반적으로 0.8

이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설검증

위의 가설에서 제시한 모델의 검증은 AMOS4.0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본 가설모델의 경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상관관계 자료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동 결과에서 편리

<표 5>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변수	항목수	Cronbach's Alpha 계수
인터넷 구직효능감	4	.8272
지각된 이용편리성	4	.8058
지각된 유용성	4	.8419
이용의도	4	.7958
이용성과	4	.7724
총항목/평균	20	.8086

<표 6>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인터넷 구직효능감	지각된 편리성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	이용성과
인터넷 자기효능감	1.00				
지각된 편리성	.135* (.050)	1.000			
지각된 유용성	.141* (.043)	.116 (.095)	1.000		
이용의도	.014 (.837)	.144* (.038)	.175* (.012)	1.000	
이용성과	.094 (.176)	.455** (.000)	.205** (.003)	.212** (.002)	1.000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성과 유용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터넷구직효능감과 편리성·유용성간, 편리성·유용성과 이용의도 간 그리고 이용의도와 편리성과 간에서는 p값이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MOS 분석에서 연구모형 경로의 적합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카이사승 값은 해당 모형의 자유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지만 그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적합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모형은 개인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구직효능감이 구직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3과 표10은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인터넷구직효능감이 지각된 이용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1은 기각되었으나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것은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먼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Venkatesh & Davis(1996), Igar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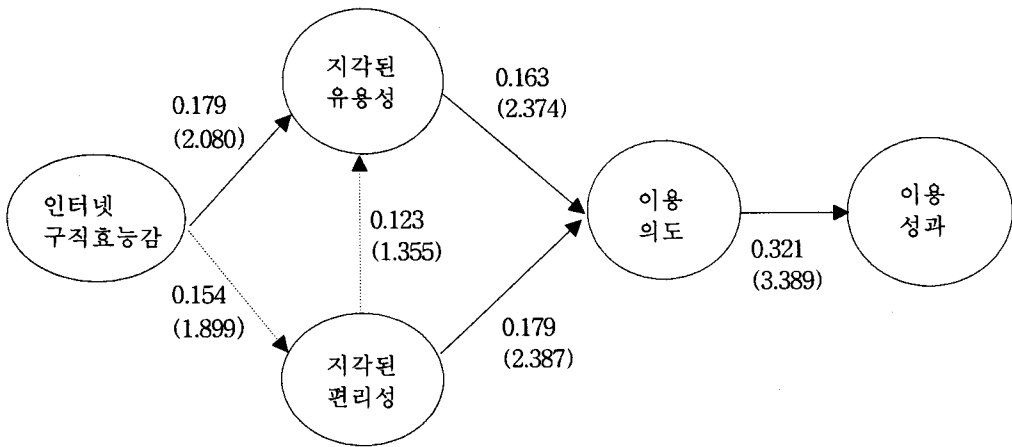
& Iivari(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신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이 매개가 되어 인터넷이 자신의 구직활동에 성과를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지각된 유용성이 결국, 구직성과를 어느 정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선행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리성은 인터넷(Work-net)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구직의도 및 구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4, 5, 6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결국, 가설 1, 3을 제외한 가설2, 4, 5, 6 모두 p값이 .05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인터넷에서 개인이 가지는 특정활동에 대한 사용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유용성에 영향을 주고,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의도 및 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바람직한 수준	수치	자유도(p-value)
$\chi^2$	-	333.075	164(0.000)
GFI	0.9 이상	0.865	
AGFI	0.8 이상	0.828	
NFI	0.9 이상	0.805	
CFI	0.9 이상	0.889	
IFI	0.9 이상	0.891	
RMR	0.05 이하	0.065	

<그림 3> 가설모델의 경로구조 분석 결과



<표 8> 가설 검증결과와 경로계수, t값

가설	경로	가설방향	경로계수(표준화계수)	t값	채택여부
H1	인터넷 구직효능감 → 지각된 편리성	+	0.154	1.899	기각
H2	인터넷 자기효능감 → 지각된 유용성	+	0.179	2.080*	채택
H3	지각된 편리성 → 지각된 유용성	+	0.123	1.355	기각
H4	지각된 편리성 → 이용의도	+	0.179	2.389*	채택
H5	지각된 유용성 → 이용의도	+	0.163	2.374*	채택
H6	이용의도 → 이용성	+	0.321	3.389**	채택

\* p<.05, \*\* p<.01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구직효능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 편리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이용의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모형을 AMOS 분석을 통해서 실증된 경로는 인터넷 구직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이용의도 및 성과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TAM모델에서 지각된 이용편리성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이 Work-net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Work-net을 사용하려는 의향이 높을 수록 결국 구직활동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각된 이용편리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구직자가 이용의 편리성보다는 구직의 유용성을 보다 중요시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구직 효능감이 인터넷에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는 판단은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믿음, 자신감은 결국 인터넷에서 구직의 유용성에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구직자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서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용에 대한 유용성을 높여주고 이러한 유용성을 바탕으로 구직활동과 성과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Work-net을 이용한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로 나타난 경로계수가 유의한 값을 가졌으나 그 수치가 높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위하여 취업관련 사이트 전반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연구방향은 외부영향변수에서 최근에 인터넷으로 인한 심리적 반응인 불안, 좌절, 사용에 대한 실패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구직

활동에는 허위구인 등 위험요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요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각된 이용편리성에 관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추후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하기 편리함보다는 다른 특성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상호작용성, 정보의 활용성, 접근 편리성과 같은 기능성을 강조한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준다. 또한 기능성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Work-net 으로 인한 구직과 관련한 심리적 안정감 또는 구직관련 효용성과 같은 요인들도 사용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인터넷을 통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의 중개과정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직자의 접근이 용이한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Work-net 통한 구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TAM모델을 고려하여 이용의 유용성에 기초한 이용의도 및 이용성도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용(1998)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인 원격수업의 운영, 경영정보학 연구, 제8권 제1호, 125-144.



- 유일(1999), 원격교육시스템의 효과측정을 위한 요인분석, 한국정보전략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7-41.
- 유일, 황준하(2002) 학습자의 원격교육시스템 이용의도와 성과에 대한 원격교육 자기효능감의 역할, 경영정보연구, 12, 3호.
- 윤석천(2001) 전자직업소개업 형성방안 연구, 노동부
- 이건창·정남호·이종신(2002) 국내 인터넷 बैं킹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정보연구, 제12권 제3호
- Adams, D.A., Nelson, R.R., and P.A. Todd(1992),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 Replication, *MIS Quarterly*, Vol. 16, No. 2, 227-247.
- Ajzen, I., and M. Fishbein(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Ajzen, I.(1985), from Intention to Actions :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J. Kuhl and J. Beckmann(eds.), New York: Springer-Verlag, 11-39.
- Bandura, A.(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H. freeman.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3.
- Bandura, A. (1984), "Recycling Misconceptions of Perceived Self-efficac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213-229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Compeau, Deborah ; Higgins, Christopher A.(1999), "Social Cognitive Theory and Individual Reactions to Computing Technology : a Longitudinal Study", *MIS Quarterly*, Jin99, Vol.23 Issue 2, 145, 14p, 4 charts, 2 diagrams
- Compeau, D. & Higgins, C. (1995), "Computer Self-efficacy :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Initial Test", *MIS Quarterly*, 19, 189-211
- Davis, F.D.(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 319-342
- Davis, F.D., R. P. Bagozzi, P. R. Warshaw(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 35(8) 982-1002.
- Downing, Charles E.(1999), "System Usage Behavior as a Proxy for User Satisfac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formation & Management*, 35, 203-216.
- Eden, Dove and Arie Aviram(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 Helping People to

-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June), 352-360.
- Elena Karahanna and Detmar W. Straub(1999), "The Psychological Origin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of-use", *Information & Management*, 35(4), 237-250
- Feller, J. W. and Moon, D. K.(1994)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Distributed Group Support Systems to Distance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Twenty-seven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vol 4, 142-148.
- Fishbein, M. and I. Aj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Addison-Wesley.
- Gefen, D., and D.W., Straub(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se of e-mail: an Extension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IS Quarterly*, 21(4), 389-400.
- Gist, M. E.(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72-85.
- Gist, M. E. & Mitchell, T. R.(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472-485.
- Hoffman, D.L., Novak, T. P. and Chatterjee, D.(1995), "Commercial Scenarios for the Web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s*, December, Vol. 1, No. 3, Special Issue.
- Hong, W., Thong, J.Y.L., Wong, W., and Tam, K.(2002), "Determinants of User Acceptance of Digital Librari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System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Winter, 18(3), 97-124.
- Igbaria , M.(1990), "End-User Computing Effectiveness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mega*, vol 18. No.6
- Igbaria, M. and Livari, J.(1995),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omputer Usage", *OMEG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 23, No.6, 587-605.
- Jones, G.R.(1986) "Socialization tactics, Self-efficacy, and Newcomers' Adjustments to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2), 262-79.
- Kanfer, R., & Hulin, C. L, (1985). "Individuals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38, 835-847.
- Lederer, A.L., Maupin, D.J., Sena, M.P., and Y. Zhuang(2000),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World Wide Web, Decision Support Systems", Vol.29, 269-282.
- Lin, J.C.C. and Lu, H.(2000),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a Web Site,"

-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20, 197-208.
- Moore, G. C and Benbasat, I. (1991),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Adopting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 192-222.
- Nahl, D. (1996), "Affective Monitoring of Internet Reamers : Perceived Self-efficacy and Succes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f Informantion Sciences*, 33, 100-109.
- Payne, J. W., J. Bettman, E. J. Johnson(1993), *The Adaptive Decision-Mak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Radner, R. and Rothschild, M.(1975), "On the Allocation of Effort",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10, 358-376.
- Ren, W. (1999), "Self-efficacy and The search for Government Information", *Reference & User Service Auarterly*, 38, 283-291.
- Ryn, M. V., & Vinokur. A. D. (1992). "How Dit it Work? An Examination of the Mechanic Thorough Which an Intervention for the Unemployed Promoted Job-search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5)..
- Srinivasan, A.(1983), "Alternative Measures of System Effectives : Association and Implications", *MIS Quarterly*, 9(3).
- Steven H. Aplelbaum & Alan Hare(1996)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Some Human Resource Application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3), 33-47.
- Szajna, B.(1996), "Software Evaluation and Choice : Predictive Validat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Instrument", *MIS Quarterly*, 18(3), 85-92.
- Straub, D., Limayem, M., and E. Karahanna-Evaristo(1995), "Measuring System Usage: Implications for IS Theory Testing", *Management Science*, 41(8), 1328-1342.
- Taylor, S. and Todd, P.A.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0), 145-176.
- Teo, T. S. H., Tan, M. (2000),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Internet Banking",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5), 1-42.
- Tenopir, C., (1999). "Influencing Database Use in Public Libraries." *Library Journal*. 24(10). 40-42.
- Thompson R. V., Higgins, C.A. and Howell, J. M(1991), "Personal Computing : Toward a Conceptual Model of Utilization", *MIS Quarterly*, vol. 15, 125-143.
- Thompson S. M. and Teo(2001), "Demographic and Motivation Variables associated with Internet Usage Activities", *Internet Research*,

11(2), 125-137.

Todd, P., I, Benbasat(1991),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omputer-based Decision Aids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 87-115.

Venkatesh, Viswanath(2000), "Determinants of Perceived Ease of Use : Intergrating Control, Intrinsic, Motivation, and Emotion in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1 Issue 4, 342-366.

Venkatesh, V. and Davis, F.D.(1996), "A Model of the Antecedents of Perceived Ease of Use : Development and Test", *Decision Science*, 27(3), 451-481.

Venkatesh, V., F. D. Davis(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 46. 186-204

Waiman Cheung, Man Kit Chang and Vincent S. Lai(2000), "Prediction of Internet and World Wide Web usage at work: a test of an extended Triandis Model", *Decision Support Systems*, 30, 83-100.

Wanberg, C. R., Watt, J., & Rumsey, D. J. (1996), "Individuals without Jobs :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1), 76-87.

〈Abstract〉

## A Study of the Effects of Job-seeking Efficacy on Use Intention and Outcome of the Work-net

Oh, Seong Uk\* · Sung Joon Yoon\*\*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the role of subjectively perceived factors of the attitude toward job-seeking activities in forming an intention to use a web. An integrative research model is presented and tested empirically. It includes the following two aspects of belief in Davis' TAM: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pecially, internet job-seeking efficacy, or the belief in one's capabilities to organize and execute courses of Internet actions required to achieve given goals, is a potentially important factor in efforts to gain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Internet us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to develop a reliable operational measure of Internet job-seeking efficacy and to examine its construct validity. An four-item Internet job-seeking efficacy scale developed for the present study was found to be reliable and internally consistent.

Also, many previous studies have established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ser acceptance and usage behavior of information technologies. However,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how that perception forms and changes over time. The current work presents and tests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usefulnes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higher internet job-seeking efficacy is an important concept which is significantly related to job-seeking activities by positively influencing intention and performance as well as usefulness on the Internet.

Keywords : Internet Self-efficacy, Employee selection Self-efficacy,  
Job-seeking Self-efficacy,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

\* Seoul Gangnam Local Labor Office · Dept. of E-Business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